딴 거 말고 ‘연결’만 하자!

(룻기 4:1~22)

1.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2.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3.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4.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만일 네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무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
5.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 그 기업 무를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딴 거 말고 '연결'만 하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딴 거 말고 ‘연결’만 하자!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스티브 잡스가 “창조성이란 단지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참 창조적인 천재입니다. 어떻게 ‘연결’이라는 단어를 창조와 연결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는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입니다. 인간의 창조활동은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던 것들을 연결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창조성이란 단지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Creativity is just connecting the dots.)’라는 말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8년 3월에 독일 하노버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시회에 국내 기업 중에서 새한정보시스템 회사가 전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전시하게 되는데 이름이 MP맨F-10입니다. 일본 소니에서 만들었던 워크맨이 떠오르는데 mp3를 사용하기 때문에 MP맨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전시회에 전시 된 이후에 불과 2~3년 후에 mp3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기업

에서 만든 mp3가 25%의 점유율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mp3가 인기를 끌자 스티브 잡스의 애플사가 뛰어들어서 2001년 10월에 '아이팟'이라는 mp3플레이어가 나옵니다.
이 아이팟 출시 때에 스티브 잡스가 예언과도 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 애플사의 아이팟이 다른 모든 mp3제품들을 시장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의 mp3 시장에서 판매량을 볼 때에 아이팟이 무려 75%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처음으로 mp3를 발명했던 우리나라 회사의 존재는 mp3시장에서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mp3회사들과 애플사의 아이팟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mp3는 음악파일 형식으로 주된 목적이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mp3플레이어를 만들던 회사들은 어떻게 더 좋은 기계를 만들 것인가만 신경을 썼는데 스티브 잡스의 생각은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기계도 기계지만 이미 인터넷 상에서 음악을 팔던 음원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음원 회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iTunes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아이팟을 온라인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 음원들을 1달러에 판매하려고 하자 음원 회사들이 처음에는 거세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마어마한 판매로 인해 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당시까지 아이팟의 판매량이 2억 7천 5백만 대입니다. 그렇다면 1달러짜리 노래 하나만 팔아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아이팟은 결국 스마트폰 iPhone과 iPAD의 기반이 되어 애플사의 제품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성이란 단지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해서 보여준 아주 모범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연결의 창조성은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태초부터 이야기되던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조성=연결'이라는 아이디어가 성경 속에 있었느냐는 것인데 태초에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위임을 하십니다. 창1:28절에 "…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축복이자 위임이자 사명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도록 명령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었는데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바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나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을 이 땅으로 연결시키는 창조적인 삶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이 땅에 연결

함으로 창조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mp3, mp3플레이어도 스티브 잡스가 창안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회사가 먼저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TV 어떤 토크 쇼에서 빌게이츠가 한국에서 만든 mp3플레이어를 가지고 나와서 대단한 기계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mp3플레이어와 음원을 연결하는 것도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필립스의 엔지니어였던 토니 파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기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는데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데 현실에 연결시켜서 실현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창조성은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의미에서의 창조는 태초의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받아들여서 땅에 연결할 때에 내 삶은 창조적이 됩니다.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나만의 삶이 됩니다. 내가 서있는 땅을 향한 그 순간에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연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절차를 따라서 기업 무르는 과정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순위가 앞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가서 백성의 장로들 열 명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자기보다 앞선 순위의 기업 무를 자에게 의향을 묻습니다.
여기에서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라고 합니다. 이 ‘팔려 하므로’라는 말대로라면 나오미가 아직 땅을 갖고 있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땅이 있다면 소작이라도 줘서 농사를 지으면 될 텐데 왜 룻에게 이삭을 줍게 했느냐는 것인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에 땅을 다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지만 이스라엘의 토지법상 땅의 사용권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 사람은 희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희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 자체는 엘리멜렉에게 있었기 때문에 엘리멜렉이 죽었으면 그 아들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었고, 그 아들들도 죽었다면 아내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소유권이 있을 때에는 대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제가 사용자에게 땅의 소유권을 사서 죽은 형제에게 물려나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던 사람도 보아스의 말을 듣고 자신이 땅을 무르려고 했습니다. 여자들만 있는 그 땅을 무르면 자기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 그를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손으로 입적시켜서 물려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대신 해서 룻과 결혼을 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가문을 만들어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되게 됩니다.
이렇듯 기업 무르는 제도인 고엘 제도와 계대결혼의 제도는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시험하는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뜻의 흐름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이나 초대교인들의 산 모습을 보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잃고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타서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끊기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였고,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없었던 독창적 삶을 살았던 기독교가 마지막에 로마를 뒤집어엎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계대결혼의 제도로 룻기를 끝내는 것은, 보아스는 어떻게 하든지 유다지파의 엘리멜렉과 그 아들들이 자식 없이 죽음으로 인해서 대가 끊겨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끝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연결고리가 되기 위한 마음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태어난 오벳을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입적을 시켰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 할 때에 엘리멜렉이 아닌 보아스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꿈과 비전을 생각하고 지금의 현실과 다른 내 꿈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업이나 건강, 자식 등 내 인생의 모든 분야에 대해 하나님은 나의 소원과 지금의 형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의 행동에서는 앞선 기업 무를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입적을 시켜야 하고, 자기가 돈을 내고 땅을 사도 엘리멜렉 가문의 소유로 넘겨줘야 합니다. 단지 보아스가 자신의 유익으로 여겼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멜렉 가문에 대해 갖고 계신 섭리의 뜻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70억 인구와 더불어 살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나타나지 않는 나만의 독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가정으로 내가 암에 걸려서 내일모레 죽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지금 할 일은 이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 앞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어떻게 이 땅에 연결할 것인가가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나만의 삶이 됩니다.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자꾸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가까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으로

연결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을 땅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나를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땅에 대한 내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보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돈 주고 땅을 사도 내 땅이 아닌데도 열심을 내고 있는 힘을 다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남기시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의 이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엘리멜렉 친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 뜻을 땅에 연결시키기 위해 매진했을 뿐인데 가장 창조적인 보아스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조성은 있는 점들을 연결하는 것인데, 스티브 잡스의 창조성은 수평면 상에 흩어져 있던 점들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139:17~18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라고 다윗이 말했듯이 나의 모든 순간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점과 같은 생각들을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죽음으로서 연결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만 이 세상 것을 끌어당기게 되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연결 통로가 되어, 가장 창조적이고 나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땅으로 연결되는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